

축사



임대영
한국섬유공학회 회장

한국고분자학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리며

존경하는 한국고분자학회 회원 여러분.

한국고분자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이 뜻깊은 자리에 한국섬유공학회를 대표하여 축하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고분자학회가 걸어온 길은 곧 대한민국 고분자 과학과 산업의 성장사이자, 세계 무대에서 우리 연구자들이 이룩한 성취의 역사였습니다. 고분자 연구는 전기·전자, 반도체, 바이오·의료, 에너지, 환경 기술 등 국가 핵심 산업 전반에서 혁신을 이끌어 왔으며, 학회가 축적해 온 지식과 연구 성과는 우리 사회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.

특히 고분자 과학은 섬유공학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두 학문 분야가 서로의 발전을 견인하며 대한민국 소재 기술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 왔습니다. 이러한 상호 발전의 역사는 두 학회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.

한국고분자학회는 지난 50년 동안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며,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. 학회가 구축한 국제적 네트워크와 연구 역량은 한국 고분자 과학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.

오늘의 50주년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새로운 50년을 향한 출발점입니다. 학회가 쌓아 온 전통 위에 미래를 더해 나가는 여러분의 노력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또 다른 도약을 이끌 것이라 확신합니다.

앞으로도 한국고분자학회가 학문적 창의성과 산업적 혁신을 잇는 가교로서 더욱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.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.

한국고분자학회 창립 50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, 학회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
한국섬유공학회 회장 임대영